

4월 행사 계획	새 노래	동 시
<p>3일(월)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p> <p>5일(수) 도예체험활동(진안창작공예공방)</p> <p>6일(목) 숲체험(운장산자연휴양림)</p> <p>14일(금) 천연염색활동(유초연계활동)</p> <p>19일(수) 비건 베이킹(부귀초병설유치원)</p> <p>20일(목) 연합현장체험학습(국립중앙과학관)</p> <p>21일(금) 고원길 걷기(유초연계활동)</p> <p>28일(금) 그림책과 놀이보따리</p>	<p>봄바람 (윤석중/윤극영) 솔솔 부는 봄바람 짙인 눈 녹이고 잔디밭에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요 시냇물은 졸졸졸 동요하며 흐르네 솔솔 부는 봄바람 얼음을 녹이고 먼 산머리 아지랑이 아롱아롱 어리며 종다리는 종종종 새봄 동요합니다인사해요</p>	<p>빨강 주스 (이미옥) 빨강 보석이 든 빨강 주스가 시원하고 짹짹해요. 빨강 주스에 초록 파가 동동 꽃 모양 당근도 동동 예뻐서 한 모금 신기해서 한 모금 빨강 보석도 파삭 “엄아, 무슨 주스예요?” “비트 물김치야, 밥 줄까?” “네, 밥 많이 주세요!”</p>

부모 교육 지원: 수두 바이러스, 백신으로 예방해요

수두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90%에 달하는 만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이 되어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아이보다 증상이 훨씬 가볍고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수두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과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수두 바이러스의 증상

수두 바이러스의 초기 단계에서는 고열과 두통의 보편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후 붉은색 수포, 가려움 및 발진이 생깁니다. 수족구와 다른 점은 반점이나 구진이 물집으로 변했다가 딱지가 앉으며, 시작 지점이 몸통에서 얼굴, 팔다리로 뻗어간다는 것입니다.

수두 바이러스 예방접종

수두 백신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후 12~15개월 아이에게는 1차 접종이 무료이며, 2차는 선택 접종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두 백신은 1차 만으로도 70~90% 항체가 형성되고, 2차 접종의 여부에 따라 수두 발생률과 감염 위험도가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수두 바이러스 상황별 가이드

백신 주사를 맞은 뒤, 주사 부위가 빨개지고 부어올 수 있습니다. 간혹 고름이 차기도 하며, 한 달 이내로 발진이나 열이 오르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접종 후 아이들의 컨디션을 잘 살펴주시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두 예방접종 시기인 생후 12~15개월 이전에 수두에 걸렸다면 접종은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항체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또한, 수두에 걸린 다른 아이와 접촉했다면 접종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72시간 이내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